

BASIC BIBLE TEACHING # 3

THE PROBLEM OF SIN

① Sin is the greatest problem we have in our lives. It is sin which causes pain and suffering, wars and disease. It is sin which causes death.

② The Bible story of Adam and Eve in the Garden of Eden is a happy one to start with. God generously gave them everything they needed. They did not have to work hard for their food; they did not suffer illness. They were close to God and were able to talk to him through the angels and to listen to his words. He gave Adam and Eve only one law. He told them that they must not eat of the fruit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He told them that if they did this they would die.

③ The Bible tells us that a serpent, or snake, lied to Eve telling her that if she disobeyed God she would not die.

Genesis 3:1-5

'Now the serpent was more crafty than any of the wild animals the LORD God had made.

He said to the woman, "Did God really say, 'You must not eat from any tree in the garden'?"

The woman said to the serpent, "We may eat fruit from the trees in the garden, but God did say, 'you must not eat fruit from the tree that is in the middle of the garden, and you must not touch it, or you will die.'"

"You will not surely die," the serpent said to the woman. "For God knows that when you eat of it your eyes will be opened, and you will b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④ The serpent could talk. It was 'crafty', that means

성서의 기초 제 3과

죄의 문제

우리 생활에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죄이다. 죄는 아픔과 고통, 전쟁과 질병의 원인이고, 죽음의 원인이기도 하다.

성서에서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시작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주셨다. 양식을 위하여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되고, 병으로 고통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워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이야기 할 수 있었고,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오직 한 가지 법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죽으리라고 하셨다.

성서는 뱀이 이브에게 하나님을 불순종해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말한다.

창세기 3:1-5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거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은 말할 수 있었다. 뱀은 '간교'하였다. 그 뜻은

it was cunning and deceitful. It told Eve that she and Adam would become like God knowing good and evil'. These words help us to understand sin. It is disobedience of God's laws. It is a challenge to his authority and position as the only true God. He alone has the right to give us laws to live by. Eve did not want to listen to God and obey him.

⑤ The Bible tells us that the serpent deceived Eve.

1 Timothy 2:14

'It was the woman who was deceived and became a sinner.'

⑥ While the serpent put the idea into Eve's mind, she thought about it and it became a temptation to her. Instead of refusing to think about it, the idea grew in her mind. She decided herself that it was all right to break the law of God. The serpent did not make the decision to sin. It did not force Eve to do so. She made the decision herself. This can be seen from the following verse.

Genesis 3:6

When the woman saw that the fruit of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pleasing to the eye, and also desirable for gaining wisdom, she took some and ate it.

She also gave some to her husband, who was with her, and he ate it.'

⑦ We are all like Adam and Eve. We also sin and disobey God. We make the choice to sin ourselves; just as Eve did. No one forces us to disobey God; it is our own choice.

James 1:13-15

When tempted, no one should say, "God is tempting me." For God cannot be tempted by evil, nor does He tempt anyone;

교활하고 속임수를 쓴다는 것이다. 뱀은 이브에게 아담과 그녀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들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 하는 것이다. 오직 참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지위와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다. 살아가야 할 법을 우리에게 주실 권리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다. 이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치 않았다.

성서는 우리에게 뱀이 이브를 속였다고 말한다.

디모데 전서 2:14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진 것입니다.

뱀이 이브의 마음에 생각을 넣어주는 했지만, 이브는 생각해보고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그 생각을 거절하는 대신 그녀의 마음에 점점 더 자라기 시작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겨도 괜찮다고 스스로 결정하였다. 뱀은 죄를 짓도록 결심하게 하지는 않았다. 이브가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지는 않았다. 이브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다음 절에서 알 수 있다.

창세기 3:6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이브와 같다. 우리 또한 죄를 짓고 하나님께 불순종한다. 우리는 스스로 이브와 마찬가지로 죄를 선택한다. 아무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불순종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우리의 선택일 뿐이다.

야고보서 1:13-15

시험을 당할 때에,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당하고 있다" 하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시고,

but each one is tempted when, by his own evil desire, he is dragged away and enticed.

Then, after desire has conceived, it gives birth to sin; and sin, when it is full-grown, gives birth to death.

⑧ When we sin we tell God that our own desires are more important to us than his laws. We behave as if we are more important than he is. We deny that there is a great God who has made us and put us on this earth to obey him.

⑨ When Eve ate the fruit and disobeyed God, Adam was there with her. She took the fruit and gave it to him and he ate also. He knew it was wrong to do this. He ate it deliberately. God told him that he was more responsible than Eve. Therefore God punished him.

⑩ After they had both eaten, God accused them of their sin. They both began to make excuses. Eve blamed the serpent . Adam blamed Eve.

⑪ We are like this. We try to blame others for the things we do which are wrong. Each of us is unwilling to confess to God that we have done wrong. God did not allow Adam and Eve to blame someone else. He condemned and punished both of them for their sin.

⑫ God told Eve that she would have pain when she bore children.

⑬ God told Adam that he would have to work hard to grow crops for food. No longer would God freely give them all that they needed without work.

⑭ They would both begin to grow old and die.

⑮ These curses were given to Adam and Eve and to all their descendants. Look at these words written

또 시험하지도 않으십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꾀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보다 우리의 욕망이 더 중요하다고 하나님께 말한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처럼 행동한다.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도록 이 세상에 우리를 지으신 위대한 하나님을 부정한다.

이브가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께 불순종 하였을 때 아담도 함께 있었다. 그녀가 열매를 취하여 아담에게 주었고 그도 역시 먹었다. 아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고의로 먹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브보다 더 중한 책임을 물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셨다.

둘 다 열매를 먹은 후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에 대해 꾸짖으셨다. 그 둘은 다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브는 뱀을 탓하고 아담은 이브를 탓하였다.

우리도 이와 같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돌리려 한다. 우리는 모두 잘못된 일에 대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가 누군가를 탓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인해 둘 다 징죄하고 벌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브에게 아이들을 낳을 때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다.

아담에게는 식량을 위하여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제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고는 필요한 것을 거저 얻을 수 없으리라고 하셨다.

그들은 늙기 시작하였고 죽게 되었다.

이 저주들은 아담과 이브 그리고 그들의 모든 후손에게 내려졌다. 신약성서에 사도 바울이 쓴

by Paul in the New Testament.

Romans 3:10-12

'As it is written: "There is no-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 is no-one who understands, no-one who seeks God.

All have turned away, they have together become worthless; there is no-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⑯ Paul tells us that every man and woman is dominated by sin. It is terrible to see ourselves like this and to think that we are worthless in the sight of God. Only one man lived a life which was totally free from sin. He is the Lord Jesus Christ.

⑰ After God told Adam and Eve about their punishment, he did something else. He sent them away from him out of the Garden of Eden. This is the saddest result of sin; it takes us away from God in our lives.

⑱ The Bible tells us that we cannot find the way back to him by ourselves. We need his help. It also tells us that he wants to help us.

⑲ God is upset that men and women are separated from him by their sins. He wants to forgive us and accept us back. He has provided us with a way back to him.

⑳ He sent his son, the Lord Jesus Christ, to live and die for us that our sins might be forgiven through him. It is Jesus who took away the great problem of sin, when he died upon the cross.

㉑ This is the most exciting news we can ever find in our lives and we only find it in the Bible.

말씀들을 보라.

로마서 3:10-12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결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사도바울은 모든 남자와 여자들이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보시기에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음을 생각하면 끔찍하다. 오직 한 사람만이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았다. 그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그들의 받을 벌에 대해 말씀하신 후, 그 외에 또 다른 일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에서 그들을 내보내셨다. 이것이 죄의 가장 슬픈 결과이다. 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한다.

성서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고 말씀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고도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것을 슬퍼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신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길을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를 위해 살고 죽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죄의 가장 큰 문제를 없애 버리신 예수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소식이며 오직 성서에서만 찾을 수 있다.

Questions

1. How did God punish Adam and Eve?
2. Why did Eve eat of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3. What is sin?
4. Where does it come from?
5. Who took away the great problem of sin?

질문

1.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아담과 이브를 벌하셨나?
2. 왜 이브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나?
3. 죄란 무엇인가?
4. 죄는 어디로부터 오는가?
5. 죄의 가장 큰 문제를 없애 버리신 분은 누구인가?